

남성 아이돌 그룹의 여성혐오 논란과 여성 팬덤의 분열

Korean Boy Group's Misogyny and Division between Female Fandom

고혜리, 양은경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Hyeri Ko(haru0489@naver.com), Eunkyung Yang(ekyang@cnu.ac.kr)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의 여성혐오 논란과 이를 둘러싼 팬덤 내부/외부의 담론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과 외적 대립의 과정을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방탄소년단 팬덤으로 대표되는 여성들이 팬덤 외부의 문제 제기로 인해 여성혐오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대해 성찰한 것, 그리고 스타에 대한 비난을 원천 봉쇄하고 비판 자체를 터부시하던 기존 팬덤의 성격에서 벗어난 것은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논란에서 얻어낸 긍정적 의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동적이고 모호한 기준 아래 팬덤을 페미니즘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억압하고 폄하하는 과정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혐오 논쟁에서 여성들이 자기혐오와 갈등의 과정 끝에 숨어버리거나, 자신의 의견과 취향을 사회로부터 용인 받지 못하거나,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며, 또 다른 혐오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여성혐오 | 팬덤 | 페미니즘 | 남성아이돌 그룹 | 방탄소년단 |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impact of Korean boy group's misogyny issue leading to internal conflicts among female fans and external division. As a result of research, BTS's fans who are mostly female reflected their identities by problem posed by external stakeholders on this issue. In the past, most fandoms tried to protect themselves from criticism but this case shows a positive significance since they broke out from stereotypical cases. Under the vague and flexible standard, fandom can be considered the obstructing factor for Feminism which suppress and denounce Feminists' idea.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possibilities of females hide at the end of the conflict process, being unaccepted by the society for their opinions and tendencies, have uncomfortable emotion against Feminism itself, or Feminism leading to another type of aversion.

■ keyword : | Misogyny | Fandom | Feminism | Korean Boy Group | BTS |

1. 서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사회에서는 '여성혐오'를 둘러싼

논쟁이 급부상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던 지난 2015년 여름,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한국 여성이 홍콩행 비행기에

접수일자 : 2017년 06월 12일

수정일자 : 2017년 07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7월 13일

교신저자 : 양은경, e-mail : ekyang@cnu.ac.kr

서 격리 조치를 거부해 메르스를 퍼뜨렸다’는 여성혐오적 루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논쟁은 시작되었다. 이른바 ‘메갈리아’로 자신을 명명한 여성들은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는 ‘여혐혐’을 기치로 걸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여성혐오적 언어와 편견들을 남성에게로 굴절시키는 ‘미러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후 여성혐오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여성을 겨냥한 강력범죄뿐 아니라 공공장소 몰카, 대학생들의 단체대화방에 나타나는 여성비하, 직장 내 성희롱 등 일상의 곳곳에서 여성혐오 문제가 분출되는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어 왔다. 문화예술계 역시 그동안 ‘예술’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었던 여성혐오적 콘텐츠에 대해 활발한 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의 논쟁이 활발해질수록 여성혐오 문제가 단순히 ‘성 대결’로 치부되거나,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인 인물을 향한 지나친 낙인과 비난으로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거나, 페미니스트를 향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편견이 이어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여성혐오에 대한 경각심과 상황 개선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이 빠르게 상승한 것에 반해 여전히 한국 사회는 가시적인 변화가 미미하다는 한계도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 사이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한국 사회 페미니즘의 노선 분화로 이어지고, 분화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도 ‘올바르고 이상적인’ 페미니즘 운동과 그 방식에 대한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혐오 발화의 주체로서의 남성들과 혐오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라는 단일하고 통일된 집단의 이분법을 상정하는 가운데, 여성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논쟁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여성혐오 논란은 여성들 사이에서 성찰적이면서도 동시에 모순적인 감정과 태도를 낳고 나아가 또 다른

여성혐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3년 데뷔한 아이돌로서, 2016년 5월 아이돌 팬덤 내 최초로 ‘여성혐오 공론화 계정’이 방탄소년단 팬덤에서 등장한 바 있다. 이들이 내놓은 곡들은 지속적으로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이면서 현재까지도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주축이 되어온 대표적인 문화 영역인 ‘남성 아이돌 팬덤’에서, 그들이 향유하는 남성 아이돌이 여성혐오 의혹에 휘말렸을 때 팬덤 내부가 겪는 갈등과 성찰, 그리고 분열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팬덤 외부에서 팬덤의 의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빠순이 혐오’라는 또 다른 여성 폄하가 일어나는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 논쟁의 복잡한 지형과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아울러 팬덤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여성 폄하의 문화를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 틀 속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에 대한 기존 논의

최근 한국사회 여성혐오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우세한 설명은 헤게모니적 남성성 개념과 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질서와 역행의 형태로 여성혐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1-4]. 연구자들은 여성혐오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주목하면서, 일베가 사용하는 표현들이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여성혐오를 어떻게 재생산하는지에 관한 논의들을 전개하였다.

윤보라[5][6]는 한국에서 구조화·장기화된 청년 실업과 경쟁이 만연한 신자유주의 아래 규범적 남성성이 해체되고 과거 남성성과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성들의 패배감이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극단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 일베는 한국 남성이 마주한 불안과 공포를 여성을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진[7]은 일베가 사회 내에 여성혐오를 재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에서, '김치녀'로 대표되는 부정적 여성상을 만들어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는 전략과 함께 긍정적 여성상도 만들어내 여성들을 통제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메갈리아의 등장과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한국 여성들의 인식 전환과 페미니즘 운동의 전개,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페미니즘을 '불편하고 나쁜' 무언가로 규정하는 시도에 관해 분석하는 흐름도 있었다. 황정미[8]는 최근 들어 널리 읽힌 페미니즘 대중서 네 권을 바탕으로, 페미니스트들이 현실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중 하나는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으로, 페미니스트는 세상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며 결국 불행해질 것이라는 '나쁜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력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이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혼란에서 오는 불편함이라 정리하였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분화된 페미니즘 노선과 이들의 충돌, 그리고 지속 가능한 페미니즘의 필요성에 대해 상기시킨다.

마지막으로 문화영역과 관련하여 여성혐오를 분석하는 시도도 있었다. 황미요조[9]는 문화산업에서 여성이 소비·수용의 주류가 되는 한국영화, TV 드라마, 뮤지컬, 팟캐스트 방송 팬덤, 도서 시장 등에 주목하면서 여성화(feminized)된 문화영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의 양상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는 여성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폄하로 연결되는 현상에 관해 기술하며, 이처럼 여성 소비자의 진정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맥락 역시 여성혐오임을 주장한다. 이는 여성의 지적 능력이나 감식력에 대한 무시, 폄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수아[10]는 한국 사회의 힙합 문화가 직면한 여성혐오 논란과 관련하여, 힙합 문화를 향유하는 여성 팬에 대한 폄하와 무시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힙합 문화 내에서 여성 비하나 성희롱에 가까운 가사가 진정성 구축의 담론으로 활용되며, 힙합 문화의 주축이

되는 남성이 힙합 문화를 향유하는 여성 팬을 '얼빠(랩 실력보다는 얼굴만 보고 좋아한다는 비하의 표현)', '힙알못(힙합을 알지 못하는의 준말)'으로 폄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이 힙합 문화 내에서 진정한 힙합 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것 역시 여성혐오라고 주장하였다.

2. 아이돌 팬덤과 젠더에 관한 기존의 연구

문화영역 중에서도 아이돌 팬덤은 특히 젠더 이슈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여성 팬덤 집단을 지칭하는 '빠순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남성', '어른'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 '10대' 주축의 팬덤은 종종 주변화되고 폄하의 대상이 되어왔다. 기획사들은 타깃 수용자를 10대 여성으로 삼고, 스타를 '오빠'의 위치에 두는 방식으로 아이돌 스타를 생산해왔으며, 아이돌 팬덤은 연령과 젠더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저평가된 하위문화로 인식되어왔다[11]. 그러나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30대 기혼 여성 팬덤을 대상으로 한 오지영[12]의 연구를 미루어보아, 최근 아이돌 팬덤을 구성하는 주체가 비단 10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통상 누나 팬으로 불리는 이들은 1990년대부터 팬덤 활동을 시작한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팬덤 활동을 계속해나가는 경우로, 소녀들의 하위문화로 여겨지는 아이돌 팬덤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이다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정적이고 폄하하는 시선들에 놓여지게 된다. 이들은 나이에 맞게 수행해야 할 것으로 부여되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과 긴장감을 빚고 있으며, 남편, 가족, 직장 동료와의 사회관계 속에서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협상함으로써 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민우와 이나영[13]은 1세대 팬덤에서 2세대 팬덤으로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면서, 스타를 향한 충성과 애정, 열광에 집중했던 1세대 팬덤과 달리 2세대 팬덤은 스타를 향유하는 고객이자 이들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엄마로 표상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는 스타를 향한 맹목적 지지와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특징지어져 왔던 아이돌 팬덤을 향한 기존의 사회적 편견과는 반대로, 이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실천을 하는 주체임을 보여

준다. 2세대 팬덤으로 명명된 아이돌 팬덤은 스타를 1위로 만들기 위한 관리에 나서거나 타 팬덤과의 유동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소속사에 의견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팬덤의 관리 역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영 안에서 다시금 관리의 대상이 되며, 이때 팬덤과 기획사가 맺는 관계는 표면상 협조적이나, 내면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의 동학은 위계적 권력 관계를 봉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연구들을 미루어 보아 성인 팬덤의 증가로 아이돌 팬덤이 10대의 하위문화라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팬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남아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는 젠더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이돌 팬덤의 수용자들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이 이들을 향한 폄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남성 아이돌 가수의 여성 팬덤은 활발한 문화 소비자이자 문화실천의 주체로 나서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여전히 다양한 사회적 담론과 필연적으로 경쟁, 타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방법론으로 온라인상의 텍스트 수집과 심층 인터뷰를 통한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방탄소년단 여성 팬덤 내부의 분열 양상과 팬덤 외부의 주장을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게재된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논란 관련 텍스트를 수집, 담론분석을 수행했다.

온라인상의 텍스트 분석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트위터가 1) 여러 아이돌 팬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페미니즘 계정이 활발히 활동하는 장이라는 점, 2) 2016년 5월 22일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공론화 계정이 등장한 공간인 점, 3)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논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트위터는 유명인에 대한 대중의 감정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트위터 상에서의 팬덤은 인적 혹은 정보적 허브와 팔로워의 관계로써 구조화되어 팬덤의 형성에 적

합한 소통 채널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14].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 내 'Advanced Search' 기능을 활용하여 주제별로 트위터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한 키워드 '#여성혐오년단'을 검색, 자료 수집에 활용하였다.

키워드 검색을 통한 위와 같은 자료 수집은 키워드를 반복해서 게재하는 계정의 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키워드를 통한 검색을 미리 방지해놓은 '서치(Search) 방식' 의견은 수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여성혐오 논란과 관련된 여러 해시태그(#여성혐오년단, #OUTBTS 등)를 통해 유의미한 텍스트의 수집이 가능했다는 점과 논란에 관한 직접적인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방법이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보았으며, 실제 트위터를 통해 본 연구에서 팬덤 외부/내부의 의견을 시기순으로 정리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텍스트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논란의 주체들이라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 팬덤과 타 아이돌 팬덤의 구체적인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온/오프라인 중 온라인에 비중을 두고 아이돌 팬덤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성들이며, 1) 방탄소년단의 팬, 2) 방탄소년단과 배타적 관계가 두드러지는 타 아이돌 그룹의 팬, 3) 2세대 아이돌부터 팬덤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온 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여성혐오 논란은 현재 남성 아이돌 팬덤 안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이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이번 논란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입장을 정리하고 구술할 수 있도록 미리 인터뷰의 내용과 연구의 목적을 서면으로 전달해 동의를 구한 뒤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하거나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특히 팬덤 내부 구성원들의 내적 성찰과 양가적 감정과 태도들, 그리고 팬덤 내부와 외부의 갈등과 대립의 양상들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면접 대상	활동 팬덤	팬덤 활동 기간	면접 날짜
A	방탄소년단	2015~현재	2017.1
B	방탄소년단	2015~현재	2017.1
C	방탄소년단	2016~현재	2017.3
D	방탄소년단	2016~현재	2017.3
E	방탄소년단	2015~현재	2017.3
F	EXO	2014~현재	2017.2
G	EXO	2013~현재	2017.3
H	세븐틴	2016~현재	2017.3
I	인피니트	2010~현재	2017.4
J	인피니트	2011~현재	2017.4
K	2PM	2007~현재	2017.3

표 2.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논란 관련 가사

제목-발매시기	가사 내용
<농담> (2015.3.20)	그래 넌 최고의 여자, 갑질/ So 존나게 잘해 갑질 아 근데 생각해보니 갑이었던 적 없네 갑 떴고 임이라 부를게. 임질
<Miss right> (2014.5.14)	명품 백을 쥐기보다 내 손을 잡아주는
<호르몬전쟁> (2014.8.20)	여자는 최고의 선물이야 진짜 내 소원은 너 뿐이야
<21세기 소녀> (2016.10.10)	21세기 소녀들아 You don't mind you don't mind that new lady 말해 너는 강하다고 말해 넌 충분하다고
<Not today> (2017.2.13)	Break it up! Break it up! 널 가두는 유리천장 따윈 부쉬

IV.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논란과 여성 팬덤의 분열

1.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논란의 시작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3년 6월 13일 유명 작곡가 방시혁이 만든 아이돌로 화제를 모으며 데뷔했다. ‘힙합 아이돌’을 표방했던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부터 앨범 전반에 힙합 비트와 사운드를 차용하는 것은 물론 멤버의 작사·작곡 참여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힙합에서의 진정성 구축을 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신의 랩 가사를 직접 적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강조해 왔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15년 3월 20일 방탄소년단의 멤버 랩몬스터가 멤버 중 처음으로 믹스테이프 <RM>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2015년 4월 29일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미니 앨범 <화양연화 Pt.1>이 발매 이후 남성 아이돌 팬덤과 여성 중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제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가사 표절, 콘셉트, 표절 의혹 등이 2015년 하반기에 차례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방탄소년단의 여성혐오 논란도 이러한 의혹 속에서 2016년 초에 등장하였는데, 이때 랩몬스터가 발표한 믹스테이프 <RM>의 수록곡 <농담>의 가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다(표 2 참조). 이어 방탄소년단이 과거 발표했던 다른 곡들의 가사들이 여성혐오 논란에 덧붙여지며 아이돌 팬덤 내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논란을 둘러싼 초기 주체들은 크게 방탄소년단 팬덤 내부와 팬덤 외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은 방탄소년단 팬덤 외부(이하 ‘팬덤 외부’)로, 이들은 <농담>의 가사 중 ‘그래 넌 최고의 여자, 갑질’, ‘갑 떴고 임이라 부를게. 임질’이라는 가사를 지적했다. 팬덤 외부는 이 가사에서 랩몬스터가 여성을 ‘갑질’하는 대상으로 언급하고, 이후 성병 ‘임질’로 부르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여성혐오라 주장했다. 특히 성병 ‘임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쾌감에 대해 크게 비난하였다.

팬덤 외부는 과거 발매 곡 중 <Miss right>의 경우 ‘명품백을 쥐기보다 내 손을 잡아주는’이라는 가사를 문제 삼았다. 팬덤 외부는 명품백을 쥐는 여자와 ‘내 여자’를 구분해내는 가사의 내용이 일부 여성을 김치녀, 된장녀로 범주화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념녀’를 만들어 찬양하는 기존 한국 사회 여성혐오 담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 전쟁>에서는 ‘여자는 최고의 선물이야’라는 가사가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다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방탄소년단 팬덤 내부에서는 논란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팬덤 내부에서는 <농담>의 ‘임질’이라는 표현이 랩 가사의 라임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 주장했으며, ‘그래 넌 최고의 여자, 갑질’에서 호명하는 ‘너’가 과거 방탄소년단에게 ‘여장’을 한다며 비꼬았던 언더그라운드 래퍼라 주장했다. 팬덤 내부에서는 특히 <Miss right> 등 과거 발매 곡의

여성혐오 논란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이때 램폰스터가 2015년 9월 앳스타일(@star1)과의 인터뷰에서 ‘힙합계 여성혐오를 지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재조명되기도 했다[15]. 램폰스터는 일부 래퍼들이 남을 디스하거나, 여성 혐오, 무자비한 욕으로 힙합을 표현하곤 한다는 질문에 ‘힙합 문화는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폐쇄적인 문화이기도 하다’며 ‘대중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 혐오는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램폰스터의 이러한 인터뷰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지향’을 ‘지양’으로 잘못 말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계속되었다.

방탄소년단 팬덤 내부가 여성혐오 논란을 부정했음에도 초기 문제를 제기했던 팬덤 외부에서는 <농담>에서 결론적으로 ‘여자’라는 어휘 자체가 비하의 표현으로 쓰였으므로 여성혐오라고 다시금 지적하였으며, 과거 발매 곡에 대해서도 발매 시기보다는 기존에 문제의식 없이 들어왔던 여성혐오적인 곡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팬덤 내부와 외부의 의견 대립은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은 메르스 사태 이후 메갈리아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여성혐오와 가부장제의 모순에 대해 일부 여성들이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는 시기였다. 이른바 ‘코르셋을 벗고’ 인식의 전환을 경험한 여성들은 트위터를 비롯한 온라인 공론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여성혐오라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이나 편견, 나아가 그동안 향유해왔던 대중문화영역에서의 여성혐오를 지적하는 흐름을 조성해냈다. 방탄소년단의 가사 및 언행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팬덤 외부로부터 문제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남성 아이돌 그룹 이외에 영화, 웹툰, 게임, 소설 등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역시 여성혐오 논란이 있었던 것을 미루어보아 이러한 검토의 과정이 당시의 흐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다른 남성 아이돌 그룹과 달리 직접 책임의 화살을 받아야 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 볼 수 있다. 데뷔 초부터 힙합 아이돌로 자기 가사를 직접 쓰는, 즉, 소속사가 하라는 대로 가사를 적

어내는 것이 아니라 멤버가 직접 가사를 적었던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가사가 여성혐오적이라는 지적에 멤버가 고스란히 책임의 화살을 지게 된다. 이는 기획사의 기획 상품으로 여겨지는 아이들이 대다수인 한국 가요계에서 작사, 작곡을 직접 한다는 점이 다른 아이돌 그룹과 차별성을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한편 팬덤에게는 다른 그룹을 좋아하는 팬과의 차별적 의미 획득의 이점을 지니고 있으나[16], 논란을 향한 책임 역시 스타 본인과 이를 향유한 팬덤에게 전가된다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즉, 방탄소년단의 정체성을 위해 시작되었던 힙합에서의 진정성 구축 방식이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논란에 방탄소년단과 방탄소년단 팬덤이 직접 입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는 방탄소년단 팬덤 내부가 여성혐오 논란을 두고 분열하는 배경이 된다.

2. 여성 팬덤의 성찰과 내부 분열

계속되는 외부의 비판에 방탄소년단 팬덤 안에서도 여성혐오라는 지적을 부정하는 초기의 태도를 벗어나 문제를 제기한 팬덤 외부의 주장을 살펴보면 여성혐오적 가사를 성찰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때 팬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의 과정은 팬덤 외부처럼 방탄소년단에 책임의 소재를 두고 가사가 여성혐오적인지 성찰한다기보다는 방탄소년단의 팬인 스스로가 그동안 여성혐오 콘텐츠를 비판 없이 수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더욱 중점을 둔 성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깐 진짜 다 찾아봤어. 그쪽(팬덤 외부)에서 주장하는 정리 글도 읽고, 기사도 읽고, 책도 읽고 하면서... 나는 애들(방탄소년단) 가사가 여혐이라고 못 느꼈었거든. 이해가 안 되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맞다고, 여혐이라고 하니깐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나 싶은 마음에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 (참여자 B)

램폰스터의 인터뷰를 제외하고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여성혐오 논란에 직접적인 피드백을 내놓지 않았던 시간 동안 방탄소년단 팬덤은 초

기 의견대로 여성혐오 논란을 전면부인하거나, B와 같이 수용자인 자신을 성찰하고, 내적으로 고민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2016년 5월 22일, 방탄소년단 팬덤 내부에서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공론화 계정(이하 공론화 계정)'이 등장하면서 방탄소년단 팬덤 내부에서도 여성혐오 논란을 인정하고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책임 소재로 지적하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공론화 계정을 만든 소수의 팬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개적인 사과와 피드백을 받아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등장했다[17].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피드백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이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성혐오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여성혐오적인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행동해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주된 팬층이기도 한 다수의 여성 팬들은, 일상에서 성적 대상화 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할 겁니다. 단적으로 멤버들이 원하는 이상형의 몸무게에 자신을 맞추겠다고 하거나, 멤버들이 좋아할 만한 조신한 여성이 되겠다고 합니다. (중략)

우리는 멤버들이 무겁고 이해하기 어려운 젠더 의식을 갖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지 사회운동가가 아니니까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 물론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 이것은 명확히 방탄소년단이 앞으로 어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공론화 계정 입장문).

공론화 계정과 공론화 계정을 지지하는 팬은 방탄소년단 팬덤 내부의 '소수'였다. 그러나 이들은 남성 아이돌 팬덤 내 처음으로 여성혐오 논란에 대한 공론화 계정을 만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퍼트려 나갔다. 공론화 계정은 여성혐오 논란에 가장 시급한 것은 가사를 작성한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직접적인 피드백이며,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것이 방탄소년단을 위해서도 더욱 이로운 일이라 주장하였다. 특

히 이들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 팬덤 구성원이 대부분이 '여성'인 만큼, 좋아하는 스타의 이미지를 위해 논란을 덮어주었던 기존의 아이돌 팬덤 분위기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16].

아이돌로지에서 진행한 공론화 계정과의 인터뷰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결국 공론화 계정 역시 참여자 B와 같이 팬덤 외부의 지적으로부터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B가 책임 소재를 경각심 없이 노래를 들어왔던 자신에게 돌린 채 성찰했던 것과 달리, 공론화 계정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에 직접 책임져 달라고 요구했다. B와 같은 팬, 그리고 공론화 계정은 팬으로서의 자신과 여성으로서의 자신 사이에서 고민과 성찰 끝에 팬인 자신도, 여성인 자신도 놓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방식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팬덤 내부에서는 공론화 계정을 지지하지 않는 팬들의 의견이 우세했는데, 이들은 우선 공론화 계정의 등장으로 인해 남성 아이돌 팬덤과 일부 온라인 공론장에서만 적극적으로 논의되던 방탄소년단의 여성혐오 논란이 외부로 노출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여성혐오가 엄청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자칫 방탄소년단을 '여혐들'로 낙인찍을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이들은 남성 아이돌 그룹의 여성혐오 논란이 최근 팬덤 간 배타적 관계 형성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다 따지면 여성혐오 논란 없이 깨끗한 남자 아이돌그룹이 어딴어? 공론화 계정은 아무도 총대 메라고 준 적도 없는데 나서서 저러니까 오히려 논란을 몰랐던 사람들도 '아, 방탄이 여혐했구나' 하잖아. 심지어 저 문제를 저렇게 공론화시키는 팬덤이 여태 없어서 '오죽 여혐을 했으면 팬들까지 나서서 저러나?' 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안 그래도 어디 가서 아이돌 좋아한다고 말도 잘 못 했었는데 하다못해 이제 아이돌 팬인 애들끼리 모여도 방탄 팬이라고 하면 (다른 가수 좋아하는) 애들 눈빛부터가 달라. '여혐들'을 왜 좋아하냐 이거지. (참여자 A)

최근의 남성 아이돌 팬덤에서 공유되는 목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시장 경쟁에서 자신의 스타를 생존시키고,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팬덤은 음반 및 음원의 대량 구매와 투표 참여를 권함은 물론 스타의 인기와 영향력에 팬덤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미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다[13].

방탄소년단이 2015년부터 마주했던 사재기, 가사 표절, 콘셉트 표절, 그리고 여성혐오 논란은 논란의 진위를 떠나 남성 아이돌 시장 내 1위 만들기 경쟁 속에서 방탄소년단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깎아내린)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소다. 팬덤 내부에서 공론화 계정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공론화 계정 측이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걸고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다수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논란이 외부로 가지 화되기 시작하면서 A와 같이 방탄소년단과 팬덤을 향한 무시와 배척이 거세졌다고 이야기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공론화 계정 측이 방탄소년단을 위해 공론화를 결심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공론화 계정이 ‘팬코(팬 코스프레)’를 한 안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공론화 계정이 진짜 팬이 아니라고 거리를 두면서 여성혐오 논란을 부정한 것이다.

또한, A의 발언에서 공론화 계정의 등장 이후 방탄소년단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왜 여성혐오로 논란이 된 남성을 용인해주는지는 물음이 있었고, 공론화 계정을 지지하지 않는 팬들은 이와 같은 물음에서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을 함께 느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은 팬덤 외부로부터 스타에 대한 맹목적인 감싸기를 위해 소위 옹운 소리를 내는 소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거나,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 여성으로서 어떤 노선을 택하고 있는지 검증받게 된다.

이 검증은 특정 멤버를 ‘안고 가냐’는 물음으로 대표되는데, 본디 아이돌 팬덤 내의 ‘안고 간다’는 표현은 여성혐오 문제로 인해 유행하게 된 표현은 아니었으며, 최근 아이돌 팬덤 내에서 그룹 전체를 좋아하는 올 팬(All-fan)보다는 그룹 일부를 좋아하는 개인 팬 성향이 강해지면서 유행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 팬덤 외부에서는 방탄소년단 팬덤 구성원을 향해 여성혐

오로 논란이 된 멤버(랩몬스터, 슈가)를 ‘안고 가는지’ 질문하고,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는 ‘저런 사람도 팬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왜 여성혐오 논란의 원인이 된 멤버를 안고 가냐’는 부정적 반응을 이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란이 된 멤버 외에 다른 멤버만 안고 간다고 밝히는 이들도 등장했다.

이러한 검증의 과정이 여러 아이돌 팬덤이 함께 활동해 소위 ‘보는 눈이 많음’ 온라인 공론장에서 계속되어 온 결과, 방탄소년단 팬덤은 외부의 비난과 검증에 대한 압박감과 자기혐오를 느끼게 된다. 이에 방탄소년단 팬덤 활동을 숨기는 ‘일코(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거나, 팬덤임을 밝히더라도 여성혐오 논란에 관해서는 아예 함구하는 팬들도 급격히 늘게 되었다.

3. 여성혐오 판단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논쟁

공론화 계정이 등장한 지 45일째 되던 2016년 7월, 동아일보에 “방탄소년단 오빠들, 여혐이요?”... 일부 팬, 가사-트위터 글 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다[18]. 이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2016년 7월 6일 자 동아일보 기사 및 여성혐오 논란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방탄소년단 공식 팬 카페를 통해 피드백 내용을 전하게 된다.

방탄소년단 측은 피드백을 통해 2015년 말부터 여성혐오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음악 창작 활동이 개인의 성장 과정과 경험, 그리고 사회에서 보고 배운 것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의 편견이나 오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도치 않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양산했다는 점에 사과하며, 팬들과 사회의 조인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중문화영역을 둘러싼 여성혐오 논란, 그중에서도 가요계 여성혐오 논란 중에서는 최초로 기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사례였기에 큰 화제가 되었다[19].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피드백이 발표된 다음 날, 공론화 계정 측도 곧바로 입장문을 게재하였다.

공론화 계정은 소속사와 방탄소년단의 입장 표명에 감사하며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언론매체에서는 공론화 계정의 등장과 빅히트 엔

터테인먼트의 피드백을 다루며 이를 의식 있는 팬들의 노력과 결실이자 스타 앞에 언제나 약자였던 ‘빠순이’의 진화로 명명하기도 했다[20][21]. 또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피드백 이후 세븐틴(@seventeen_femi, 2016.11), 엑소(@exo_feedback, 2016.11) 등의 여성혐오 공론화 계정도 트위터에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공론화 계정을 지지하지 않았던 방탄소년단 팬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피드백이 여성혐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낸 것에 사과한 것이지 여성혐오를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견고히 하며 여전히 공론화 계정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은 피드백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우선 방탄소년단 팬덤에게 계속되어왔던 비판, 검증, 배척의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팬덤 외부로부터 오는 검증과 질문에 대해 방탄소년단의 팬임을 숨기고 ‘일코’를 하거나,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던 팬들은 소속사의 피드백으로 인해 대답할 말이 생겼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여성혐오 논란에 대한 외부의 비난에 ‘방탄소년단이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콘텐츠 제작 시 유념하기로 했다’고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에 일종의 안도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팬들이 아무리 말해줘도 방탄이 직접 사과하라고 그렇게 졸라대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애들이 욕먹는 모습만 봐야 했는데, 소속사에서 딱 입장을 내놓으니까 그날은 속이 후련하더라고 같은 고민을 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믿음도 생기고 (참여자 C)

방탄소년단 밖의 여성혐오 논란 사례를 둘러봐도 소속사나 스타가 직접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때 아이돌 팬덤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척 한정적이다. 랩몬스터의 <농담> 속 ‘임질’이라는 표현이 라임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팬들의 의견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무시되었듯, 팬덤 외부에게 있어 팬덤의 의견은 객관성을

상실한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팬덤에서는 스타에게 여성혐오 관련 서적을 선물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여성 문제에 관심을 두기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여성 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의 노력만이 이어져 오기도 했다[19][22]. 이와 같은 상황을 약 1년간 겪어온 방탄소년단 팬덤의 경우 소속사의 피드백은 논란의 종결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것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피드백 이후 방탄소년단 팬덤 외부의 반응이다.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원했던 이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피드백 이후, 다시 가사를 직접 쓴 멤버 본인이 직접 사과하지 않고 소속사가 대신 나섰다는 점을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일각에서는 <동아일보>에 기사가 게재되고 사건이 외부로 크게 노출되는 것 같으니 급하게 피드백을 한 것 아니냐며 이미 피드백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속사의 피드백 여부를 떠나 랩몬스터의 <농담> 중 ‘임질’이라는 표현은 남성 아이돌 그룹 여성혐오 논란 중 ‘역대급 여성혐오’라며, ‘여혐에도 급이 있다’는 표현으로 방탄소년단의 여성혐오 논란을 이어가기도 했다.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재된 생각 때문에 한 말 실수랑 직접 고심하면서 단어를 골라서 쓴 가사가 같아?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건강한 여자가 좋아요’ 정도의 발언이랑 ‘임질’이랑 둘 다 여혐이라고는 해도 어떻게 같은 급에 놓을 수 있어? 그리고 피드백도 가사 쓴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소속사에서 피드백 하나 했다고 끝난 거 아니라고 생각해. 가사를 직접 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참여자 G)

물론 팬덤 외부에서도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일부 존재했는데, 이들은 우선 남성 아이돌 그룹의 여성혐오 논란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입장을 표명한 사례 자체가 드물어서 방탄소년단의 향후 행보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여성혐오 논란은 빅히트 엔터

테인먼트의 피드백 이후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피드백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방탄소년단은 2016년 10월 10일, 여성혐오 논란에 대한 피드백 이후 처음으로 두 번째 정규앨범 <WINGS>를 발매했다. 그러나 <WINGS>의 수록곡 중 <21세기 소녀>라는 곡에서 다시 한번 여성혐오 논란이 이어졌다([표 2] 참조).

이 곡에 대해 방탄소년단 팬덤 외부에서는 남성인 방탄소년단이 왜 소녀들에게 강해질 것을 요구하느냐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는 ‘넋이 나가네 여자들이 say 어 애는 또 뭐야 대체 누구야?’라는 부분도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를 암시하는 가사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공론화 계정 측에서도 앨범 발매 이틀 뒤인 10월 12일 가사에 대해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론화 계정 측은 팬덤 외부의 문제 제기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피드백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성혐오적인 가사에 팬덤 활동을 그만둘을 의미하는 ‘탈덕’을 선언한다며 ‘#릴레이탈덕선언’ 해시태그를 달아 팬덤 활동을 그만두겠다는 선언문을 세 차례 게재하였다.

공론화 계정을 지지하지 않았던 방탄소년단 팬덤 내부에서는 공론화 계정이 이전부터 팬을 사칭한 ‘팬 코스프레’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이들의 릴레이 탈덕 선언을 전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공론화 계정을 지지했던 팬 중에서도 이 릴레이 탈덕 선언에는 동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공론화 계정이 그동안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을 위해 공론화를 결심했으며,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여성혐오 논란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팬덤 활동을 그만두겠다는 선언문을 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때부터 방탄소년단 팬덤 내부에서 팬덤 외부와 공론화 계정 측에서 주장하는 ‘여성혐오적인 가사’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팬덤 내부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논란 이후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단순히 공론화 계정 측의 기준에 만족스럽지 못한 가사 수준이라는 이유로 ‘탈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들의 기준이 유동적이라는 점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대체 여성혐오적인 가사의 정확한 기준이 뭐고 그건 누가 정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맞고, 기준이 유동적이고, 확실하지 않거든? 잣세븐의 <딱 좋아> 같은 노래는 자존감 높여주는 노래라고 칭찬받는데, <21세기 소녀>는 방탄소년단 너희들이 뭘데 충분하니 마니 하냐고 하잖아. 절대적인 기준도 없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난 말이야. (참여자 A)

A와 같이 여성혐오 논란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방탄소년단 팬들은 <21세기 소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특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면접자 중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노래 가사 중 여성과 관련된 언급만 해도 일단 ‘여혐’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C, D, I, J) 방탄소년단 팬덤 내부에서는 팬덤 외부와 공론화 계정의 모호한 기준 아래 방탄소년단을 ‘여혐소년단’으로 규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방탄소년단 팬덤을 배척하고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4. ‘불편한 무언가’로서의 여성혐오

여성혐오를 판단하는 기준의 모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탄소년단 팬들이 늘자, 팬덤 외부에서는 다시금 이런 팬들이 ‘오빠(스타)’를 감싸느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가 논란에 처했을 때 스타를 옹호하는 팬덤의 의견은 무조건적인 감싸기라 비난받기도 하는데[23], 방탄소년단 팬덤 역시도 팬덤 외부로부터 이와 같은 비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팬덤 외부에서는 ‘방탄소년단 팬들은 취존(취향존중) 못 하겠다 (한 트위터 이용자의 글)’, ‘내 주변 방탄소년단 팬들을 블락(차단)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의 글)’는 내용을 커뮤니티와 SNS상에 지속적으로 올렸다. 소속사의 피드백 이후에도 전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방탄소년단 팬덤 내부에서도 논란에 대해 ‘지친다’는 이들이 늘었다.

방탄소년단 팬은 믿고 거른다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 내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제 ‘걸리야

할' 대상이라는 거야. 내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는 거로 저 가사의 어디가 여성혐오냐는 내 물음 자체가 그냥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기 가수 감싸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소속사 피드백 이후에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마치 버르고 있었다는 듯 또 터지더라. 저 사람들의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도 이제 지치고 짜증 나. 그냥 내 의견은 저 사람들에게 여성인권 위에 오빠 있는 일개 '빠순이' 의견밖에 안 되는 거야. (참여자 D)

팬덤 외부에서는 방탄소년단이 피드백 이후에도 여성혐오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지적'하지 않고 감싸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D가 들었던 '믿고 거른다'는 표현과 '여성인권 위에 오빠 있다'는 표현으로 방탄소년단의 여성혐오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소비하는 팬들에게도 여성혐오 논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방탄소년단의 여성혐오 논란은 <21세기 소녀>에서 종결되지 않고 2017년 2월 13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리패키지 음반 <YOU NEVER WALK ALONE>에서도 계속되었다. 팬덤 외부에서 이번에는 앨범 수록곡 중 <Not today>라는 곡의 가사 중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표 2] 참조).

팬덤 외부에서는 본디 직장 내 임금, 승진 문제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이나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현실을 의미하는 '유리천장'을 성공한 '남자'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이 언급한 것이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유리천장 '따위' 부수라고 표현한 것에서 성차별 문제를 알잡아본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론화 계정 측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대신 유리천장 오용과 관련하여 방탄소년단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리트윗)하여 게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릴레이 탈퇴 선언 이후로 급격히 팬덤 내 여론이 안 좋아져 의견 발표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탄소년단 팬덤에서는 이미 유리천장이라는 단어가 성차별 이외에도 인종차별이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소수계층의 사회 진출이 좌절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번 앨범에서 방탄소년단이 어슬러 K. 르퀸이 1973년 쓴 판타지 단편소설 <오벨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콘셉트로 활용하는 등 앨범 전반에서 사회 내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가사의 내용 역시 소수에게 함께 맞서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저 노래가 같이 힘든 거 이겨내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남들 눈에는 그냥 성공한 남자 아이들이 건방지게 말한 거고, 이번 문제로 방탄소년단은 늘 여성혐오 문제로 잡음을 만드는 아이들이 되어 있더라고 애초에 애들이 진짜 이 문제에 관심도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사서 매 맞는 짓을 할까? 그냥 사랑 노래나 하겠지. 나는 밖에서 던진 질문에 애들이 하나하나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모르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 (참여자 E)

참여자 E의 말처럼 팬덤 외부에서는 방탄소년단이 피드백 이후에도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페미니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어린 10대 팬들'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유리천장의 본래 의미를 오해해서 알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본디 성차별에만 적용되던 유리천장의 의미를 다른 소수 계층에게 벌어지는 차별의 의미로 방탄소년단이 오용하면서 유리천장이라는 단어의 본 의미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2017년 2월 18일,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가 콘서트 기자회견에서 유리천장 논란에 대해 직접 견해를 밝히게 된다. 랩몬스터는 "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트리기 힘든 의미로 사용한 단어이자, 주로 여성 인권 위주 이슈들에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에게 확대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 많은 분들의 지적처럼 잘못 사용하거나 오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랩몬스터의 발언 이후에도 팬덤 외부에서는 본인도 인정한 명백한 오용이라는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팬덤 외부에서도 일부가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일련의 여성혐오 논란에 '불편하고 지친다'는 의견을

내가 시작했다. 계속되는 남성 아이들에 관한 여성혐오 논란에 대해 팬덤을 향한 지나친 비난과 배척의 양상이 피곤하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방탄은 자기들 땀에는 남들이 비난하는 걸 극복해보겠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어설 프게 건드리느니 이 문제 안 건드리는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어차피 욕할 사람은 이제 뭐가 되든 욕할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해. 그리고 대체 팬이 왜 여기서 욕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참여자 H)

참여자 H의 의견처럼 다른 면접 참여자 중에서도 차라리 방탄소년단이 당분간 여성혐오적이라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는 애초에 배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B, J, K). 나오는 앨범마다 논란이 계속되었던 만큼 다음 앨범에서도 지켜보는 눈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나 이들이 여성혐오 논란에 피로와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는 논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오는 것이었다.

2015년부터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과 그 팬덤을 둘러싼 2년간의 논쟁이 진정 여성 인권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이 맞는지,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라면 또 다른 여성인 ‘팬덤’의 의견은 왜 팬이라는 이유로 걸러져야 할 대상이 되는지가 이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는 여성혐오와 관련된 논쟁을 이들이 ‘불편한 무언가’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를 쟁점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논쟁 가운데, ‘남성 아이돌 그룹’의 여성혐오 논란과 이를 둘러싼 팬덤 내/외부의 담론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과 외적 대립의 과정을 확인하고자 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중심의 문화 영역으로 여겨져 온 ‘남

성 아이돌 팬덤’에서 이들이 향유하는 ‘텍스트’이자 관리의 대상이기도 한 남성 아이돌이 여성혐오 논란에 당면했을 때, 팬덤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해나가는지 보고자 했다. 나아가 이것이 향후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논의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하고자 했다.

표 3.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논란 시기별 팬덤 외부/내부 담론 변화

시기	팬덤 외부 의견		팬덤 내부 의견	
초기 논란			-여성혐오 지적에 대한 반발과 불인정	
논란 장기화	-여성혐오적 가사에 대한 지적		-책임소재는 아이돌 그룹을 소비하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인정과 성찰적 태도	
공론화 계정 등장	-가사를 직접 쓴 멤버와 이를 소비한 팬에게 책임 물음		-어쩔 논란이 팬덤 간 배타적 관계 형성에 악용된다는 주장 -공론화 계정은 ‘팬 코스프레’라고 발발	-공론화 계정 개설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피드백 요구
소속사의 사과 피드백	-때 늦은 피드백에 대한 비판 -멤버 직접 사과 요구	-소속사 피드백에 긍정적평가	-오해의 소지를 인정한 것이지 여혐 인정은 아니라는 주장 -외부 비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의 표현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표명
논란의 지속	-방탄 팬들의 감싸기 태도에 대한 비판 -여성혐오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 -여성인권 위에 ‘오빠’ 있는 빠순이라는 평가		-팬덤 외부에서 제기하는 어쩔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불만 -팬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무시당한다는 인식	-팬덤 외부의 입장에 동의 -방탄소년단 행보에 유감 -릴레이 탈덕선언

[표 3]과 같이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논란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과 팬덤 내부의 분열, 내/외부의 의견 대립은 최근 2년간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여성혐오 이슈와 페미니즘 노선의 분화 현상과도 연관 지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 이슈는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과 ‘미러링’을 통해 기준에 만연해 있던 여성혐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에서부터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메갈리아 사이트가 분화된 뒤 파생된 레디즘, 위마드나 기준에 존재했던 여성 중심 커뮤니티, 트위터 등에서도 미러링 용어의 존속 여부와 ‘진정한’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론장의 성격과 구성원에 따라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페미니스트'에 대한 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분화해 나갔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각자의 분화된 노선에 대한 이해와 타협보다 무엇이 '올바른 페미니즘'인지를 가려내는 것에 급급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빠가 허락하는 페미니즘'을 한다고 다른 여성을 비꼬거나, 유동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일단 '여혐'이라 모는 이들을 '프로 불편러', '입페미'라고 칭하는 등 각자의 노선에 대한 비난과 배척의 정서가 강하게 나타난다. 방탄소년단의 여성혐오 논란 역시 초기 여성혐오적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 전환의 의도와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며 '빠순이'를 비난하는 또 다른 여성 배척과 폄하의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팬덤 외부에서는 '남성인 아이돌 그룹을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고 '판단되는' 팬덤을 몰지각한 사람, 즉 여성임에도 '이상적인 페미니즘'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 짓고, 이로 인해 방탄소년단 팬덤에 속해 있는 여성은 또다시 페미니즘에 대해 논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배제의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아이돌 팬덤에 대한 편견, 즉 광적이고 합리적 비판이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편견을 활용하면서 아이돌 팬덤에 대한 혐오의 정서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리해보면 방탄소년단 팬덤으로 대표되는 여성들이 팬덤 외부의 문제 제기로 인해 여성혐오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대해 성찰한 것, 그리고 스타에 대한 비난을 원천 봉쇄하고 비판 자체를 터부시하던 기존 팬덤의 성격에서 벗어난 것은 방탄소년단 여성혐오 논란에서 얻어낸 긍정적 의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동적이고 모호한 기준 아래 팬덤을 페미니즘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억압하고 폄하하는 과정이 이번 논란의 과정에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팬덤에 속해있는 여성은 필연적으로 자기혐오와 갈등의 과정 끝에 숨어버리거나, 자신의 의견과 취향을 사회로부터 용인 받지 못하거나, 아예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학계가 아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인 여성들에게 인식되고 적극적으로 논의된 것은 최근 몇 년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에 만연해 있던 여성혐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첫걸음부터 최근에 급진적인 페미니즘과 온건적인 페미니즘으로 분화하는 과정까지 의미 있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화된 노선간의 유동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의한 페미니즘 운동의 획일화보다는 페미니즘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인정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칫 급진적인 것만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는 생각 아래 다른 노선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보여주듯 다시금 여성을 억압하고 숨게 만드는 또 다른 혐오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성의 위기에 원인을 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논란에 접근해왔던 기존의 시도만큼 같은 여성 사이에서 페미니즘의 노선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어떤 대립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문화적 편견이 어떻게 활용되며 이는 한국 사회 여성 인권에 관한 논쟁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의미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결국 지속 가능한 페미니즘을 위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이 연구가 하나의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1] 김수아, 김세은, “‘좋아요’가 만드는 ‘싫어요’의 세계: 페이스북 ‘여성혐오’ 페이지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1권, 제2호, pp.5-44, 2016.
- [2] 배은경,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8권, 제1호, pp.7-41, 2015.
- [3] 한운형, “한국 좌우파 투쟁의 흐름 속에서 ‘일베’를 바라보다: ‘일베’는 기존의 좌우파와 어떻게 닮았고, 또 다른가,” 진보평론, 제57호, pp.14-32, 2013.

[4] 천정환,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역사비평, 제116호, pp.353-381, 2016.

[5] 윤보라, “일베와 여성 혐오,” 진보평론, 제57호, pp.33-56, 2013.

[6] 윤보라, “김치녀와 벌거벗은 임금님들,” 여성혐오가 어쨌다?, 현실문화, 2017.

[7] 엄진,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1권, 제2호, pp.193-236, 2016.

[8] 황정미, “‘불편한’ 페미니즘, ‘나쁜’ 페미니즘, 그리고 우리 안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제16권, 제2호, pp.449-458, 2016.

[9] 황미요조, “문화영역의 여성화와 여성혐오,” 여성이론, 제32호, pp.57-72, 2015.

[10] 김수아, “힙합은 여성혐오적인 장르인가요?” 대중음악, 제15호, pp.124-140, 2015.

[11] 홍종윤, 팬덤문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12] 오자영, 30대 기혼 여성의 팬덤과 나이의 문화정체성,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13] 정민우, 이나영, “스타를 관리하는 팬덤, 팬덤을 관리하는 산업: ‘2세대’ 아이돌 팬덤의 문화실천의 특징 및 함의,”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2호, pp.191-240, 2009.

[14] 황유선, “유명인과의 트위터 매개 상호작용 특성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8호, pp.72-82, 2013.

[15] 앳스타일, “‘방탄’ 랩몬스터 “힙합계 여성 혐오? 지양해야죠.” http://www.atstar1.com/view.php?uid=0150914_453065510, 2015.09.14.

[16] 김현경, “아이돌을 둘러싼 젠더화된 Schadenfreude의 문화정치학,” 한국언론정보학보, 제80호, pp.115-142, 2016.

[17] 아이돌로지, “그 팬들이 방탄소년단에게 피드백을 요구한 이유,” <http://idology.kr/7165>, 2016.06.28.

[18] 동아일보, “‘방탄소년단 오빠들, 여혐이예요?’... 일부 팬, 가사-트위터 글 해명 요구,” 2016.07.06.

[19] 한겨레, “방탄소년단, ‘여혐’ 논란에 “책임 통감,” 2016.07.07.

[20] 오마이뉴스, ““모르면 공부하세요”.. 스타에게 ‘

쓴소리’하는팬들,” http://star.ohmynews.com/NWS_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272158, 2016.12.22.

[21] 한국일보, “내 아이들의 젠더의식을 말하면서 팬 질합니다,” 2016.08.10.

[22] 위키트리, “엑소 찬열 팬클럽,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에 기부,” http://www.wikitree.co.kr/ain/news_view.php?id=283384, 2016.11.28.

[23] 우지혜, 백선기, “대중문화 텍스트에 관한 SNS 비평 담론 연구- 아이유 <Zeze>를 둘러싼 미학적 해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701-717, 2017.

저 자 소개

고 혜 리(Hyeri Ko)

준회원



· 2017년 8월 : 충남대학교 언어학
· 언론정보학과(학사)

<관심분야> : 대중문화, 문화이론, 팬덤 연구

양 은 경(Eunkyung Yang)

정회원



· 2000년 8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박사)
· 2001년 9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대중문화, 위험커뮤니케이션